

자유 도계 유통체제가 최선의 방법이다

신 정 일

(九良랜드·육계경영)
(본지 편집위원)



현행법은 근본적인 모순점을 지니고 있어
시행이 불가능하다

닭고기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양계인의 입장에서 닭고기 유통방법을 생각하는 접근 자세는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하나는 닭고기가 유통되는 시장형태가 어떠한간에 양계인이 생산한 닭을 막힘없이 순조롭게 출하시켜 줌으로써 생산자가 판매에 애로를 격지 않게만 해주면 된다는 경영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안팎을 넓혀서 상품출하에 대한 애로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되면서 산업전체가 균형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육계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는 자세이다.

서울시 일원에 대한 도계단속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몽기간으로 하고 8월 16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계단속을 한다는 말을 듣는 양계인은 100이면 100 모두가 “어이쿠! 이거 또 큰일났구나! 어떻게 하지?”하는 첫마디로 그 현실을 표현한다. 도계단속은 곧바로 가격하락의 의미하고 상품출하의 막힘을 뜻하는 것이 7.

년간 겪어온 생산자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현행 도계법의 당위성이나 효율성등을 이론적으로 따져보기 이전에 우선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현실을 신중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도계단속을 그대로 시행하게 될 때 가장 타격을 받게되는 부류는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된다. 육계산업의 도계유통에 관계되는 부류는 생산자, 소비자, 생계상인, 도계상인 그리고 관계당국자의 다섯 종류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호해야 되고 가장 힘이 미약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속칭 현행 도계법인 것이다. 이것은 과장아닌 뚜렷한 현실이다. 도계단속에 따라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은 서로 고발하고 헐뜯고 벌금내고 싸움벌이는 국민 서로 간의 불협화음 현상이다. 과거 7년간 도계단속이 실시될 때는 의례히 “이번이야말로 뿌리를 뽑아 도계유통을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것이 당국자의 칼날같은 결의자세였고 그것이 한달도 못가서 다시 무산되고 그 사이에 생산자만 녹아나는 한결같은 현상의 되풀이였다.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육계생산자대표가 수없이 당국자를 방문하고 언제까지든 해결할테니 조금 참아달라는 약속을 받아오곤 했었다. 그

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겪어온 생산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건 또는 육계산업 발전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건간에 현행의 도계법은 근본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결론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자유 도계유통체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월간양계 82년 3월호 p. 40 '닭고기 도계유통 시행방법의 개선' 참조)

생산자들이 닭고기 도계유통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도계유통이 더욱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육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고 하루 빨리 도계유통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 즉 현행의 도계유통방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바로 생산자가 살고 소비자가 보호받고 서로 물고 뜯는 국민계층간의 싸움이 없는 소망스러운 도계유통방법을 시행하자라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 및 전국지역대표들이 과거 7년간 반복되어 온 도계단속의 부조리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얻은 것이 바로 자유도계유통체제(FREE PACKING SYSTEM - 앞으로 FPS라 약칭함)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도계를 하든 일단 도제한 상품만을 유통판매케 하는 자유도계유통방법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자유도계유통방법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선 점검해 보자.

첫째, 일단 모든 시장의 닭고기 유통이 모두가 바라는 도계상품으로 유통된다.

둘째, 그렇게 고심하던 관계당국자의 정책목적이 달성된다.

셋째, 생산자가 생산한 닭이 이상없이 출하되므로 생산자보호가 된다.

네째, 도계상인과 생계상인으로 나누어진 현행 시장체제가 모두 도계상인으로 일원화되고, 영업행위에 불안이 없어지므로 적극적인 판매경쟁(품질과 가격과 친절등) 현상이 나타나 결국 소비자가 보호된다.

다섯째, 동시에 소비증가현상이 나타난다.

여섯째, 결과적으로 시장의 영세 서민상인을 보호하게 된다.

일곱째, 훌륭한 시설의 도계장이 계속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육계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자유도계유통방법이 시행될 때 이상과 같은 바람직한 현상은 반드시 이룩된다. 다만 이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현재 몇가지 있을 수 있다.

우선 일부 도계장측에서 현행법대로 시행하여 달라는 요청과 자유도계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관계당국자에게 항의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도계장측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



△ 생산자, 소비자 모두 보호될 수 있는 법 운용으로 도계법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다(사진은 외국의 닭 부분육 판매)



△ 위생적으로 처리된 도계품

나 궁극적으로 도계장축 의견이나 주장들의 근본적인 발상은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욕심이라면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모든 인간의 행동은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더우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가의 욕심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도계장축의 욕심을 단순히 나쁘다고 몰아부칠 수가 없다. 다만 어떤 계층에서 욕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일 뿐이다.

다음, 두번째의 저해요인으로는 자유도계유통체제가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계당국자의 의구심이다. 도계장소나 도계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위생의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매일 매일 일정수 이상의 닭을 도계하고 상품화해야 하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도계장소가 산모퉁이나 개천가

에서 이루어진다는 가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상인이든 개별적으로 혹은 몇 명씩 모인 상태에서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설을 갖출 것은 뻔한 일이다. 오물처리에 관한 환경위생은 오히려 현재의 생계상에 의한 환경보다 더욱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각 해당 행정구역에서의 환경위생 단속으로 그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 자유도계유통하에서의 상품품질은

더 이상 논할 문제가 안된다.

세번째,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현재의 도계법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혹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문제는 관계당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자는 자유도계유통체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퇴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해두지만 일단 모든 유통판매과정이 도계상품화 되고 더욱 소망스러운 도계시장형성을 약속하는 확실한 발전의 단계이지 결코 퇴보가 아니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그냥 생계유통을 실시한다면 분명히 퇴보이지만, 자유도계유통은 바로 전체 시장을 도계상품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장을 원고지에 쓰고 있는 필자의 마음은 8월 15일 이후의 도계단속시련

을 어떻게 견디나갈 것인가하는 걱정으로 packed 있고, 이러한 걱정은 생산자이면 누구나가질 것이다.

생산자를 살려주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영세상인에게 생업권을 박탈하지 않고, 계층간에 물고 뜯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하고, 소망스러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도계유통체제가 채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역시 당국의 힘이 가장 크다. 관계당국에서 정책조정을 과감히 해 줄 것을 생산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하여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두개의 그룹이 싸우고 있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들을 한방에 몰아넣고 밖에서 문을 잠근 뒤, 그 두 그룹이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결론을 얻을 때까지 며칠이든 몇달이든 내보내주지 않음으로써 타협안을 이끌어내게 했다는 고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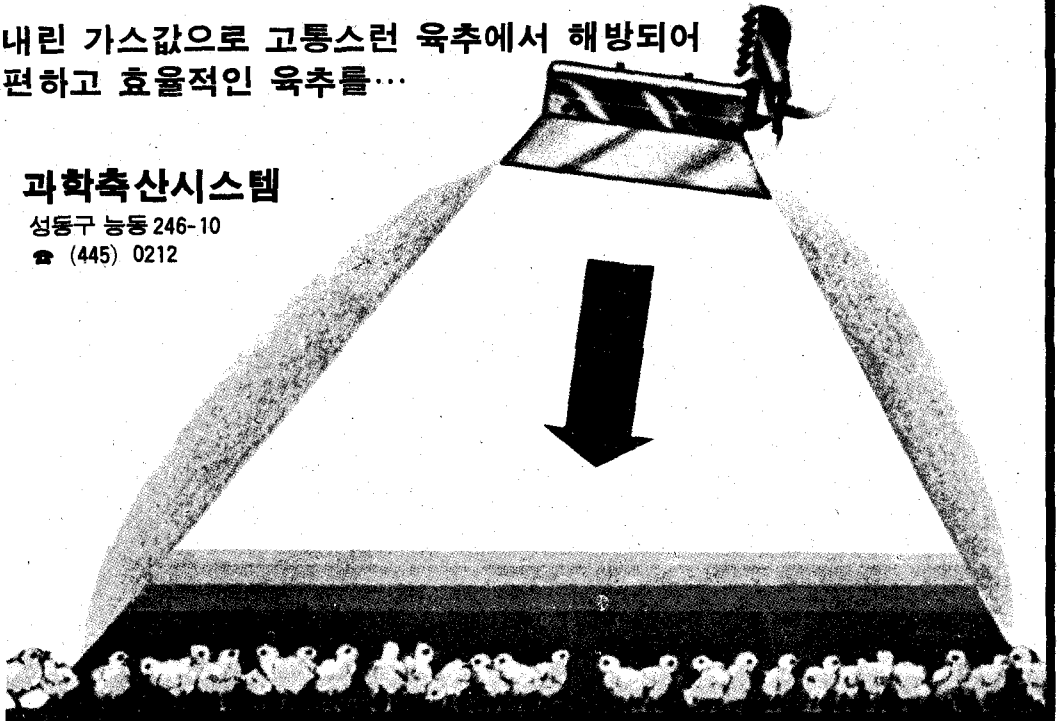
도계법의 현행방법을 놓고 반대되는 그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협안을 모색해 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역시 합의점은 자유도계유통체제 (FREE PACKING SYSTEM) 밖에 더 있겠는가!

LP가스시대 도래

내린 가스값으로 고통스런 육추에서 해방되어
편하고 효율적인 육추를...

과학육산시스템

성동구 능동 246-10
☎ (445) 0212



적외선 가스육추기는 태양열처럼 아래로 내려쬐인다. 병아리와 바닥이 잘 보온되며, 육추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노동력을 80% 이상 절약한다.